


공동체 소식



연중 제27주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공로와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내려 주소서

10월 기도지향

- +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냉담자들의 가정을 위하여
- + 예비자 교리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신심미사 안내

- 예수성심: 10/7(금) 오전10:00, 십자가의 길 기도 (미사 30분 전 시작)

본당 총구역회

- 일시: 10/9(주일), 교중미사 후.

10월 맨하탄 공동체 미사

- 일시: 10/8(토) 오전11:30.

10월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10/15(토) 오전11:00

본당 나자렛 교육관 화장실 공사 완료

- 평협회 시설부장님의 주관으로 바닥판과 설비 교체공사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본당 재무위원으로 봉사하길 원하시는 분들의 지원을 받습니다.

- 내용: 헌금정리 및 본당재무에 관련된 활동에 봉사하시고자 분들의 신청 받습니다. 그 동안 재무위원으로 봉사해오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스톤 채플(Stone Chapel)' 건물보수기금 모금에 정성껏 협조바랍니다.

- 기준금액: 300불/1가정 이상.

본당 셀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2	211	180	271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금 주	-	고평원 프란치스코
	-	정예찬 미카엘
차 주	문호진 안토니오	김정원 안젤라
	이원준 요한	차민서 임마누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주연 세실리아	홍순익 마르띠노 최은미 아네스
차 주	김대연 요셉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금 주	행사 2조
차 주	박정자, 김경돌, 이은미

헌금 봉사자

금 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차 주	문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9/25	81명	338불	2,100불
이우석, 박동희, 홍순익, 고영방, 김진미, 임창주, 현교정, 차호섭, 류기범 (총 9세대)			
건축헌금	지난주 합계: 1,050불, 총합계: 4,050불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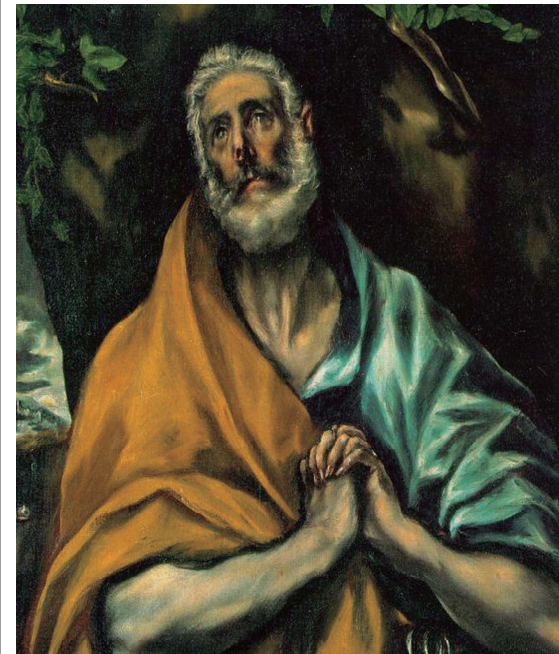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kc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hin@daum.net

회 장 임창주 베드로
M: 913.961.5166
ch01yim@hanmail.net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7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청하며,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주님의 성실한 종이 되기로 다짐합시다.

성화해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베드로 (엘 그레코, 유채, 워싱턴 DC. 필립스콜렉션 소장)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루카 22,61-62)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말로 표현 못할 감사함으로 인해 베드로처럼 눈물만 흘릴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보다 그분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해, 우리는 하느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며 그분께 대한 믿음을 굳세게 해야겠습니다. -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 서 : 하바쿱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1,2-3; 2,2-4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 화 답 송 :
-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옆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서 말씀입니다. 1,6-8.13-14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5-10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쉐 마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오늘 1독서의 하바 2,4는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실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아무나’는 ‘확고함, 성실함, 충실함, 믿음’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그리스어로 옮긴 70인역 그리스어 성경은 이 구절의 ‘아무나’를 ‘피스티스’로 번역하는데, 신약성경에서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흥미롭게도 사도 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된다고 말하면서 하바 2,4를 인용하는데, 이때 70인역 그리스어 성경 번역에 따라 ‘피스티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 「성경」도 로마 1,17을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로 옮깁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본래 하바 2,4에서 인용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바 2,4는 사도 바오로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는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할 때 믿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감정적 열정이나 믿음을 통해서 오는 심리적 안정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오로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하바 2,4는 이 믿음이 단순히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불의와 재난, 억압과 폭력, 시비와 다툼 앞에서도 끊임없이 하느님께 충실히 살아가는 대단히 실천적인 것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물론, 하바 2,4에서 하느님께 충실하다는 것은 하느님과의 계약에 충실한 것, 곧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고 로마 1,17에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믿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곧, 바오로에게서 믿음이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충실한 것이라는 점에서 하바 2,4

와 다릅니다. 하지만 하바 2,4의 ‘충실함’이나 로마 1,17의 ‘믿음’이나 구약 전통 안에서 볼 때는 동일한 의미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간혹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믿음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휩싸이는 일종의 신비 체험을 통해 주어지거나 강화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청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라고 명하십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믿음이 강화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전하는 하느님의 뜻에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도 오늘 2독서에서 티모테오에게 하느님의 은사를 불태우고,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며,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할 것을 권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자신이 맡은 훌륭한 것을 지키라고 권합니다. 믿음이 더해져 신비로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거나, 하느님에 대한 확신이 가져다주는 심리적 안정에 도취되지 말고, 자신이 믿는 바, 곧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굳건히 지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한 이들을 두고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하였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이 오늘 독서와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 염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주춧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자로

어느 날 예수님은 평소에 잘 알고 있던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 자매가 사는 베타니아 마을로 가셨습니다. 두 자매의 오빠인 라자로의 병문안을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라자로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타 자매는 예수님께 사랑을 보내어 “예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엇이냐 말씀하셨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 11,1-4

예수님께서 마르타와 여동생 마리아, 그리고 라자로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신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려고 와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자로가 죽었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 무엇이냐 말했고,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였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 11,17-37

예수님께서 슬프고 마음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동굴이었는데 그 입구에는 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자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치우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 큰소리로 무엇이냐 외쳤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 11,38-44

인간 역사 안에서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더구나 죽음을 직접 경험해 보고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 앞에서 죽었던 라자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로써 자신의 말을 듣고, 자신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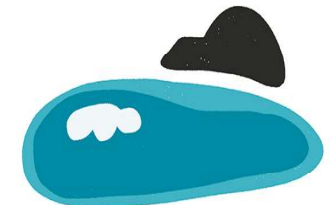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복음묵상

믿음이란

믿음이란
가득하게
차오르는 것이기보다는
가득하지 않다 해도
오직 믿음만이 담겨있을 때,
그때 시작된답니다.

맑은 물처럼
하얀 구름처럼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루카 17,6)